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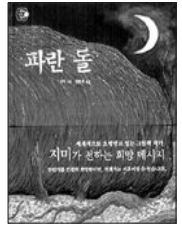
북스

고독·긴장·열정 가득한 '매혹의 공간'

어린이 책꽂이



▲신중플루루 이긴 딱딱이와 울보=어린이들에게 신중플루루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통화로 들려주는 책이다. 신중플루루의 개념, 증상, 치료를 설명한다. 한 초등학교에 신중플루루 환자가 발생하면서 소풍, 운동회가 취소되는 소동이 일어나는데... 책 곳곳에 손 씻기 등 신중플루루 예방을 담았다. <휴먼드림·9천원>



▲파란 돌=파란 돌을 소재로 청명한 자연과 세상에 남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렷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의 그림과 철학적인 이야기가 담겼다. 오랜 세월 숲에서 살아온 파란 돌은 눈에 불이 나면서 검은 돌로 변했다가 49일간의 장마가 끝나자 다시 광택이 되돌아온다. <대교출판·9천800원>



▲밥을 먹는 배추벌레=2000년 '아동문예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한 김마리아씨의 세 번째 동시집이다. 시에는 오리새끼·강아지·채사부러 멧돼지·공룡알까지 또한 평범한 일상에서 문명 비판, 자연이 훼손된 현장까지 두루 보여주고 있다. 시인 특유의 따뜻한 감성이 빛어내는 53편의 동시가 실렸다. <창세기·8천원>



▲거지가 준 삼백냥=성격이 좀 별나고 까칠해 보이지만 마음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장승이 이야기다. 처녀의 효심에 감동한 장승이 거지로 변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준다는 내용이다. 사건을 하나씩 해결해 때마다 백 냥씩 얻어 처녀 아버지를 구해 주는 이야기로, 장승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한솔수북·9천500원>



▲노벨상 수상자가 들려주는 미생물 이야기=195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아서 콘버그 박사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괴물 '미생물'에 대해 설명했다. 그가 아들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손자 손녀의 이름을 넣어 만든 미생물의 특징을 담은 시 10편이 실렸다. 식중독 예방을 비롯해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북·1만4천원>



▲세상에 가장 더러운 머리=머리 감기를 싫어하는 어린이를 욕설로 이끄는 책으로 기발한 상상력으로 유쾌한 웃음을 준다. 주인공 클레어가 머리를 감지 않고 버티자 머리가 점점 부풀어오르고 머리카락 속에서 말이나 피자, 자동차, 비행기가 튀어나온다는 재치있는 아이디어의 우화다. <국민서관·9천500원>



▲초등 저학년을 위한 처음 공부 습관=초등학교 1학년이 아이기 집에서 출발해 학교생활을 하고 다시 집까지 오는 여정을 따라 일어나는 온갖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생활 동화로 엮었다. 아이들의 각종 실수를 담은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올바른 습관을 몸에 익히는 방법을 담아 흥미롭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개똥이책·9천500원>

▲너도 보이니='아주 무서운 밤에'라는 부제가 달린 시리즈물 6권. 4살 이상의 어린이가 단어를 익히고, 사물의 형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동감 있는 숲은 그림들이 가득하고, 숲은 그림 찾는 재미가 만만치 않다. <달리·1만원>

작가의 집

프란체스카 프렐로리 드를레 지음



"그들은 그곳에서 살고, 창조하고, 고통받았다. 스스로 택한 고독과 글을 써야만 한다는 긴박감이 언제나 그곳에 도사리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그들은 글쓰기의 열정으로 집을 채웠고, 바로 그만큼 집을 사랑했다."

프랑스 저널리스트 프란체스카 프렐로리 드를레는 "작가에게 집은 그들의 예술적 여정만큼이나 상징적인 하나의 작품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가 쓴 '작가의 집-책들이 탄생한 매혹의 공간'은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이다.

자신의 집을 '고독의 장소이자, 창조 공간'이라 이야기하는 '연인'의 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프롤로그로 시작하는 책은 헤밍웨이부터 버지니아 울프까지 20명의 대표작가 집을 찾아가다. 책에 등장하는 집들은 작가들이 문학적으로 가

장 찬란한 시기에 머물렀던 곳들이다. 수차례 자살 미수 사건을 벌이다 결국 염증으로 생을 마감한 에네스트 헤밍웨이가 머물렀던 키웨스트 바닷가 집의 적막한 집필실에서는 그의 걸작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첫부분이 완성됐고, '오후의 죽음', '아프리카 푸른 언덕' 등 대표작들이 탄생했다. 1939년 쿠바의 아바나로 떠나기 전까지 이곳은 그의 창작욕을 부추기는 공간이었고,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한 터전이었다.

버지니아 울프가 머문 곳은 '수도자의 집'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버지니아 울프는 수도자의 집 정원 담벼락에 붙여 지은 오두막에 짐가하며 마음을 달랠고, 설계 작업대에 서서 하루 세 시간씩 글을 쓰곤 했다.

칼렌 블레센이 아프리카 농장에서 만난 운명의 연인 데니스 핀치 해턴을 추억하며 쓴 작품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진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덴마크의 조촐한 작업실에서 탄생했다. 또 미국의 대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소년 시절 신나는 모험담은 하트포드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톰 소여의 모험'으로 뒤살아났다.

책은 그밖에 주로 밤에 일컫는 촛불 앞에서 글을 썼던 아일랜드의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집, 피카소 등 당대 예술인들의 사진이 걸린 장로도의 집, 웨일스의 보헤미안으로 불린 달린 토



에네스트 헤밍웨이가 머물렀던 키웨스트의 집에서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 걸작이 탄생했다.

마스의 집, 옥스퍼드의 신사 농부로 불렸던 윌리엄 포크너의 집 등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일상용품, 생활의 틀, 작가들의 추억을 간직한 물건들이 시간이 멈춘 것 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담은 200여장의 사진이 직접 작가

의 집을 방문한 듯한 느낌을 전해준다. 특히 각 작가들의 진한 숨결이 묻어 있는 집필 실 풍경들은 깊은 인상을 준다. <월북·1만4천800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살인범·다 빈치 고도의 두뇌게임

다 빈치 게임... 기욤 프레보 지음



프랑스 작가 기욤 프레보가 '다 빈치 게임-로마의 일곱 살인'을 통해 실존했던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불러냈다. 이번 작품 소설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남긴 작품들의 암호를 풀어내는 맨 브라운의 '다 빈치 코드'와 달리 다 빈치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소설 속 다 빈치는 머릿속으로만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산하는 소심한 천재가 아니라 백발에 눈빛이 형형하게 반짝이고, 시의 적절하게 유머와 위트를 발휘하는, 맛도 자락을 휘날리며 로마 시내를 활보하는 정력과 활기가 넘치는 행동가 캐릭터이다.

로마를 배경으로 한 소설은 잔혹한 살인사건의 범인과 그 뒤를 쫓는 다 빈치의 고도의 두뇌게임이 주축을 이룬 흥미진진한 역사추리소설이다. 잔인하고 교활한 살인마는 헤르로니무스 보슈의 '자옥도'를 모방해 7명의 목숨을 차례차례 안고질하는 데....

진직 역사 교사였고 텔레비전 역사 채널에서 기고가로 활동했던 저자는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16세기 이탈리아의 정치·사회적 상황은 물론 지형지물까지 손에 잡힐 듯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기념품과 유적 등 로마의 숨겨진 구석구석의 매력을 재발견하게 하며, 잘 짜인 플롯과 속도감 있는 전개로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문학의문학·1만4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우유는 골다공증을 부추긴다?

우유의 역습 테리 슈카르 지음



우유는 우리 몸에 좋을까? 프랑스 과학전문 기자 테리 슈카르는 '우유의 역습'을 통해 이 같은 질문에 의문을 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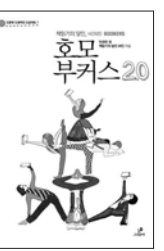
'완전식품' 우유는 칼슘이 많아 뼈가 튼튼해지고 키가 커진다거나 몸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영양소가 풍부 들었다는 게 이제까지의 '상식'이었다. 하지만 저자는 우유는 낙농업자의 유제품 가공업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나아가 우유와 유제품을 과하게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우유는 골다공증을 예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에 골다공증을 부추긴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골다공증은 오래된 뼈가 새로운 뼈로 대체되는 과정에 걸리난 것인데 노인성 골다공증의 경우 새로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충분치 않다는 게 문제다. 경증 이후를 대비해 조골세포의 생산을 자극하지 않고 아껴줘야 하는데, 이렇듯 때때로 계속 많은 유제품을 먹으면 조골세포의 증식을 너무 일찍 자극해 조골세포의 생산력을 빨리 고갈시킨다는 이론이다.

또 사람이 우유를 마시며 송아지의 성장을 돕기 위한 물질도 함께 먹게 되는데, 현대 농장의 젓소들에서 짜낸 우유에는 옛날 농장 젓소들의 우유보다 더 많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IGF)가 들어 있다. 이 때문에 호르몬 체계가 흐트러져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일마·1만5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독자가 말하는 생활속의 책임기

책임기의 달인... 이권우 외 지음



진정한 책임기는 읽은 다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기획된 것이 '호모 부커스 2.0 프로젝트'.

호모 부커스(Homo Bookers)가 한 단계 진화했다는 의미를 담은 책 '책임기의 달인, 호모 부커스 2.0'은 "이 땅의 책임기 달인들과 함께 독서론을 주제로 책을 펴내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 책의 저자 중의 하나인 이권우씨가 제안해 시작된 '호모 부커스 2.0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독서론에 관한 원고를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총 172편의 원고 중 20편을 뽑았다. 여기에 '생활 속의 책임기'라는 주제로 이권우, 안광복, 반이정, 강양구, 고종석씨의 글이 더해졌다.

마침내 데뷔의 기회를 갖게 된 독자들은 보란듯이 자신들의 책임기와 노하우를 마음껏 뽐냈다.

"전 세계에 60억의 사람이 독서를 하면 60억 가지의 책 읽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말한 이찬우씨(대학생)의 말처럼 스무 명 모두 각양각색의 독록, 발랄, 기발한 독서론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기 끝이 아니다. 이권우씨가 심사위원이 밝혔듯이 "호모 부커스는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며, 읽고 실천하고 변화하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버전 3.0, 5.0 진화는 계속될 것이다. <그림책·1만4천9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고접수안내 (062) 227-9600

자본감소공고

대인동삼일부동산

HOME COX 홈콘 부동산 리서치

(주)국민법률경매

분실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Table with multiple columns listing real estate listings, including location, price, and agent information.

상속한정승인공고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지역: 전남·북, 기타지역 용량: 100KW이상~ 무제한 조건: 민원해결

Table with multiple columns listing real estate listings, including location, price, and agent information.